

<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어떤 일을 놓고 성자 주님께 간절히 부탁하고 간구한 것은 주님께서 확실하게 해 주셨고, 부탁하지 않은 것은 조금만 해 주셨다.
2. 주님께 부탁하고 구한 것은 확인해 보니 확실하게 되어 있었고, 주님께 부탁하지 않은 것은 아쉽게 반쯤만 되어 있었다. 그래서 꼭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탁해야 된다.
3.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간절히 부탁하면 그 일을 해 줄 자가 있다. 고로 사전에 부탁하면 해 주고, 부탁하지 않으면 원하는 대로 해 줄 것도 그가 생각한 대로만 해 준다. 하나님도 주님도 그러하시다.
4. 꿈에 내 혼체가 본 것이다. 내 집으로 들어가는데,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너무 좁아서 비좁게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지역 땅 주인이 길을 넓히는 공사를 했다. 내 집으로 들어가는 길은 1m를 넓혀 주었다. 원래 나는 2m 정도 넓히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땅 주인을 만나서 말했다. “이 지역 전체의 길을 이리저리 넓혀 주어 감사합니다.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길도 전보다는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좀 좁습니다.” 했다. 그랬더니 땅 주인이 말하기를 “길을 내기 전에 내게 부탁했으면, 원하는 만큼 길을 내 줬을 텐데...” 하며 아쉬워했다. / 하나님과 성자 주님 앞에 우리의 입장을 보여 주신 것이다. 고로 성자 주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내게 구하여라. 내 아버지께 구하여라.” 하신 것이다.
5. 기도를 깊이 해야 자기 구할 것이 생각난다.
6. 기도를 깊이 안 하면 자기가 구할 것이 생각나지 않는다.
7. 기도를 깊이 못 해서 성자 주와 통하지 않고 대화를 못 하는 것이다.

8. 성자는 높은 차원에 있다. 고로 우리가 높이 올라가야 만난다.
9. 밑으로 흐르는 물에는 발을 씻고, 그 위에 흐르는 물에는 몸을 씻고, 가장 위에 흐르는 물은 식수로 사용한다.
10. 육계나 영계나 높은 차원일수록 더 밝고, 더 좋고, 더 아름답고, 더 신비하고, 더 웅장하다.
11. 성자 주님은 밑물같이 왔다가 일순간 썰물같이 떠나신다.
12. 성자 주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잘해라.
13. 때가 되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이 행하시기 전에, 미리 부탁하고 간구하여라.
14. 부탁하면 해 줄 것도 부탁하지 않으면 안 해 준다.
15. 이발사가 머리를 자르기 전에 미리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부탁하면, 원하는 대로 잘라 준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이발사 스타일로 머리를 잘라 준다.
16. 머리를 다 자르고 나서 “좀 길게 자르려 했는데요...” 하면, 이발사는 “미리 부탁하지요.” 한다. / 성자 주님은 “나도 이러하다.” 하셨다.
17. 매일 주님께 원하는 것을 부탁하고 기도하여라. 성자 주님은 사랑하는 자가 원하는 것을 해 주기 원하신다. 그러나 이야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보편적으로만 해 주고 가신다.
18. 무엇을 간구할지 모르는 자들아. 깊이 기도해야 구할 것이 생각난다. 부지런히 행동해야 생활 속에서 구할 것이 생각나는 것이다.

19. ‘공적인 것’은 성자 주님이 해 주시지만, ‘개인적인 것’은 부탁해야 특히 더 좋게 해 주신다.

20. 국가에서도 국가의 공적인 도로는 알아서 내 준다. 그러나 개인 집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부탁해야 길을 낼 때 원하는 대로 해 준다. / 성자 주님은 “나도 그러하다.” 하셨다.

21. 애인이라도 이야기해야 해 줄 것을 해 준다.

22.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관광을 했다. 다 하고 돌아와서 남자가 여자에게 “만족했어?” 물으니, 여자는 “아까 거기에 갔을 때 내가 가고 싶어 했던 곳에 갈 줄 알았는데 안 가고 그냥 오니 아쉬워. 거기 꼭 가 보고 싶었는데...” 했다. 이에 남자는 “아까 진작 이야기하지. 이야기했으면 즉시 그곳에 갔을 텐데...” 했다. 이야기 안 하면, 사랑하는 애인이라도 못 해 준다. / 신랑 되신 성자 주님은 “나도 이러하다.” 하셨다.

23. 성자 주님은 기본적인 것은 해 주신다. 그러나 개인적인 것은 자기에게 맞게 부탁하고 구해야 해 주신다.

24. 어떤 사람이 말했다. “그것이 자네 것인 줄 몰랐네. 알았으면 내 불도저로 길을 닦을 때, 자네 것도 깨끗이 닦아 줬을 것인데... 몰라서 일부만 했네.” 했다. 그는 너무 아쉬워하며, 이제는 자기 일을 부지런히 그에게 알리기로 했다.

25. 축복을 받고 살아라!

26.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것보다 편히 앉아 있는 것같이 좋다.

27. 축복을 못 받고 사는 자는 겨울철 추위에 떨고 있는 자와 같고, 축복을 받고 사는 자는 봄날을 맞은 자와 같다. (꼭 축복받고 살아야 된다.)

28. 축복을 못 받고 사는 자는 평지와 같고, 축복을 받고 사는 자는 높은 산과 같다.

29. 축복을 못 받고 사는 자는 초가집에 사는 자와 같고, 축복을 받고 사는 자는 빌딩에 사는 자와 같다.